

민주 '이재명 무죄' 여론전... "사법 살인에 동조 말라"

내일 예정 1심 선고 앞두고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철퇴 내려달라"
"공정한 판결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보여달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집중했다.

당 검찰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100만명이 무죄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가 유신 독재의 엄혹한 시절에도 정의로운 판결로 지금까지 국민 존경을 받은 것처럼 모래도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무리하고 편파적인 수사에 분노한다.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탈탈 털어 수사하고 그레도 비리를 찾지 못하니 무리하게 꺾 맞춰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의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닌 사법부의 시간이자, 진실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검찰을 용인해선 안 된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를 찾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법원 "불필요한 혼란 방지·법익 등 종합 고려해 결정"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망신주기' 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해진 건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해당 규칙이 적용돼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2년 2개월 만인 1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방청객 등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 확정

페루 리마 회의서 만장일치 선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인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의장을 맡는다.

ABAC 한국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BAC 4차 회의 후 조 부회장이 2025 ABAC 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국과 지역의 기업인자문위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ABAC 한국 위원으로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조 부회장은 "2025 ABAC 의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이 큰 경제 상황에서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AC 회의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의 약자로, 21개 회원국의 ABAC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APEC 활동 과정에서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거나 APEC 산하 각 그룹회의에서 요청하는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1차 정상회의 직후 ABAC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 회원국 정상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

고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은 내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업인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 작성을 위해 조 부회장은 내년 2월부터 연간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올해 건의문에는 디지털 교역 환경 개선,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녹색경제 촉진 등 총 26개의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경제인행사의 메인 세션인 'APEC CEO 서밋'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에는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의장을 맡아 주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주 '명태균 녹취파일' 추가 공개...기관장 인사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

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씨가 강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

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여사가 명씨에게 건넨 '코비나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